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장점

(사무엘하 18:1~18)

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14.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장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장점'

'장점은 내 인생의 패(牌)요, 내 인생의 가치요, 내 삶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장점에 집중하라, 장점을 살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점과 연관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이의 장점에 집중하라"는 책에서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장점혁명,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나와서 한때 유행했습니다. 게임에 열중하는 아이라면 그것을 장점으로 삼아서 열정을 쏟을 대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공부와 연결 시켜준다면 꼴찌에서 일등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말들입니다. 안 그래도 삶에는 절대적으로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힘을 들이는데도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면 허튼짓은 그만두고 장점에 힘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지니는 사회적 본질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삶의 방법을 도출함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되 교만하지는 말자'는 말을 합니다. 장점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삶은 곧 사회적인 성공이며 거기에 더해 교만하지 않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삶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선민들에게 있어서 장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장점을 근거로 삼아 출발하는 삶은 죄악이기 때문에 선민은 장점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장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굴해야 합니다. 내 안의 장점이 아닌 내 밖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굴해서 그 뜻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처럼 굳이 뜻을 묻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갖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그때 나오는 생각은 십중팔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갖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시기 위해서는 더러운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이 나의 마음이 가야할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상태가 나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선민의 장점을 말하자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세상에서 말하는 장점은 치명적인 유혹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삶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장점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은 마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외모를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을 출발할 수 없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혹은 머리가 좋거나 학력이 뛰어나거나 건강이 좋은 것을 장점으로 여깁니다. 더 세부적으로 혈압은 좋고 당은 없고 피부는 좋다고 여길 때에 그것에 마음이 붙게 되는데 이렇듯 장점은 마음을 붙이는 유혹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유일한 장점이 되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점이 하나도 없는 편이 낫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의미에서 주어진 장점은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유혹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 동건 씨 같은 외모가 아니라서 감사할 수 있고, 아인슈타인처럼 지

능이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으며, 뛰어난 건강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이제는 장점을 장점으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장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장점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장점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좋다는 것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기를 반복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므로 장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장점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장점으로 가지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장점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장점으로 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장점으로 모실 때에만 각 사람들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특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보다 후새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역사하심으로서 다윗이 도망하던 기간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후새의 말대로 전국에서 지파별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징집 기간이 필요했는데, 다윗도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모아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다윗을 따르던 사오천 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험준한 지형의 에브라임 수풀에 들어갔다가 늪과 가시덤불과 벼랑에 의해서 더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도망가는데 그 때에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노새를 타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다가 수풀의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요압장군의 휘하에 있던 병사가 보고하게 되어 요압이 창 세 개를 들고 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창 세 개'는 날카로운 날이 달린 무기가 아니라 긴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군인이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왕자의 위엄을 말하는데, 왕자가 아버지 왕을 모반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칼과 창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있던 막대기에 심장이 찔려 죽게 되고 요압장군 휘하의 부하 열 명에게 칼로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데 냉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압살롬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압살롬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앞서 14장에서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달아났

다가 3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뒤에 바로 맥락상 엉뚱해 보이게 압살롬의 신상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그의 외모가 너무나 출중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흠모합니다. 그 장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려 4.5kg정도의 머리카락의 무게였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설명한 뒤에 압살롬이 모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성경 상에 나타나는 압살롬의 특징은 인간사회가 말하는 장점의 화신입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여동생을 진정시킨 후에 2년간 기회를 엿보다 모든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졌을 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망했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요압을 부르는데 오지 않자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이용해서 아버지와의 중재를 성공시킵니다.
압살롬은 이렇듯 마음을 먹으면 왕이라도 움직이는 자기중심적 욕구를 성사시키는 결단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불러서 오지 않으니 밭에 불을 지르는 역학관계를 압니다. 모반을 계획할 때에도 허황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서 시골에서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며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결국 그러한 행동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전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게 되는데 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잘났는데 그 중에서도 압살롬이 잘났고 여러 가지 장점을 총망라해서 머리카락으로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점을 상징하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고, 창도 아닌 막대기에 찔려 죽게 되고 평소에는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못할 졸개들에게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령하셨음이더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관련된 모든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즉 장점에 근거해서 영위하는 삶의 총계가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사람의 머리카락이 1년 동안 500g 정도 자라는데 비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4.5kg정도씩 자랐다는 것은 그의 장점이 그렇게 많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자신의 장점으로 산 자의 결과가 이렇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성경에서 개인적인 장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다윗의 장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장점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장점으로 붙잡았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피신을 다닐 때에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점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진적이 없었던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장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내부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장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장점을 살렸을 때에 행한 일이 밧세바를 강탈하고, 우리아를 적군의 칼에 죽도록 명령을 내린 것도 사회적으로 주어진 왕이라는 권세의 장점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다 망하는 신세로 전락했던 것인데 이래도 장점을 살리시겠습니까?

이렇듯 장점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육체의 장점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장점으로 삼아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장점이 없는 것은 유혹과 시험이 적은 것이니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내 장점으로 삼고 살기에 아주 용이한 것이 장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장 동건 씨가 자기의 외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장점으로 삼기보다, 우리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장점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난 자들보다도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장점으로 삼기 쉽습니다.
압살롬은 출생부터 다윗의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왕가와 왕가의 결합으로 시작된 자였습니다. 압살롬의 모든 장점들이 그를 왕에 이르게까지 하였지만 하나님보시기에는 그 장점들의 합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막대기에 심장이 찔리고 졸개들에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어리석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펴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장점이야말로 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고 치명적인 라이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장점이십니다. 나의 장점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삶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아직 십자가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신은 율법과 신앙 속에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이 되실 수 있고, 이 장점을 통하여 밧세바 사건을 제외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장점에 대해 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장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